

News

은행과 저축은행 예대출 · LCR 완화 연말까지 6개월 연장

중앙일보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 속 금융권의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은행 유통성 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이 이달 말에서 오는 9월 말까지로 연장 앞서 금융당국은 이달 말까지 통합 LCR은 현행 100%에서 85%로, 외화 LCR은 80%에서 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감원의 '은행장 제재 권한' 다시 논란

한국경제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자격을 3년간 제한하는 '문책경고' 제재 권한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가운데 어느 기관에 있는지를 놓고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또다시 논란 자본시장법의 불완전 판매 징계는 금감원을 거쳐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지만, 금융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와 관련해서는 문책경고 이하의 제재를 금감원장 선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안정 보다 쇠신 부산-경남은행, 수장 모두 교체한다

한국경제

빈대인 부산은행장과 황윤철 경남은행장이 동시 교체되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그룹 실적 부진을 쇠신을 통해 넘겠다는 전략 드러내 부산은행 행장 쇼트리스트로 안감찬 부행장과 명형국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선정했다. 경남은행 임추위는 최홍영 부행장, 김영문 BNK금융지주 부사장을 최종 후보로 선정

은행 주총 관전포인트...주주환원 · 사외이사 선임

데일리안

25일부터 금융권의 정기주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이번 주총의 현안은 주주 환원 정책, 최고경영자(CEO)연임, 사외이사 선임 건 금융 지주사들은 주총서 제도적 기반을 마련, 6월말 당국의 방침이 끝나면 과거 수준의 배당정책을 실현하겠다는 계획

'영업의 1조 시대' 연 미래에셋대우, '대우' 뎀다

뉴스1

미래에셋대우가 출범 5년 만에 미래에셋증권으로 사명을 변경한다. 미래에셋대우는 사명 변경을 통해 미래에셋의 통일된 CI를 고객에게 명확히 전달해 투자전문그룹으로서의 금융소비자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키움증권, 2월 해외주식 총 거래금액 16兆 돌파

이데일리

지난 1월 해외주식 약정금액 14조1000억원을 기록한 키움증권은 한 달 만에 다시 역대 최고치. 지난해 2월 해외주식 월 약정금액이 약 1.12조였던 것과 비교하면 1129% 증가 해외주식 거래 계좌 수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2월 해외주식 활동계좌 약 4만 계좌에서 올해 2월 활동계좌는 약 44만 계좌로 집계돼 전년 동기 대비 약 1000% 급증

안방보험, 미래에셋대우에 1.7조 규모 항소 제기

이데일리

미래에셋대우(006800)는 당사에 AB스테일빌(AB STALE VILL, 안방보험)이 미국 델라웨어 대법원을 통해 1조7148억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3월 9일 공식 AB스테일빌이 제기했던 계약 이행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매도인(안방보험)이 매수인(미래에셋대우)에게 계약금, 거래비용,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

'호실적' 손보사, 배당성향 축소에도 배당금 '급증'

이코노믹리뷰

금융당국이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 금융권에 배당 자제를 권고하면서 손보사의 배당성향도 축소됐지만, 주당 배당금은 오히려 증가. 차 손해를 감소에 따른 실적이 개선된 영향 손해보험사의 보통주 기준 1주당 배당금은 1,000~8,800원으로 전년 850~8,500원 대비 3.5~50.6%까지 증가. 지난해 순이익이 늘면서 배당성향 낮춰졌음에도 배당 금액은 증가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는 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